

# 전문적인 내용에 한정된 독자 고민

## 과학기술출판의 걸림돌들... 질적 발전을 위한 현실대안 절실

출판계에서 과학기술서가 차지하는 위치는 미미하다. 전문가로 한정된 독자와 협소한 출판시장 때문에 활대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실학을 중인의 학문으로 폄하하고 인문학을 숭상했던 오랜 전통은 '과학입국'이니 '과학기술의 발달은 국력의 바로미터'로 일컬어지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본과 자원이 부족해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학기술출판은 가장 적은 투자로 기술인력을 육성·재교육하는 기본단위다.

### 편집의 영역 제한돼 있어

과학기술서는 일반서적과 분명 다르다. 교재나 수험서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인은 한 줄도 읽을 수 없을 만큼 전문적이고, 책을 찾는 이들은 정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책을 구입한다. 과학기술출판이 다른 분야의 출판에 비해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이다. 과학기술서의 한결같은 판형이나 장정, 전형적인 서체나 조악한 편집 레이아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지적하지만 디자인을 돌아볼 만큼 과학기술출판사가 여유롭지 못하다는 현실이 가로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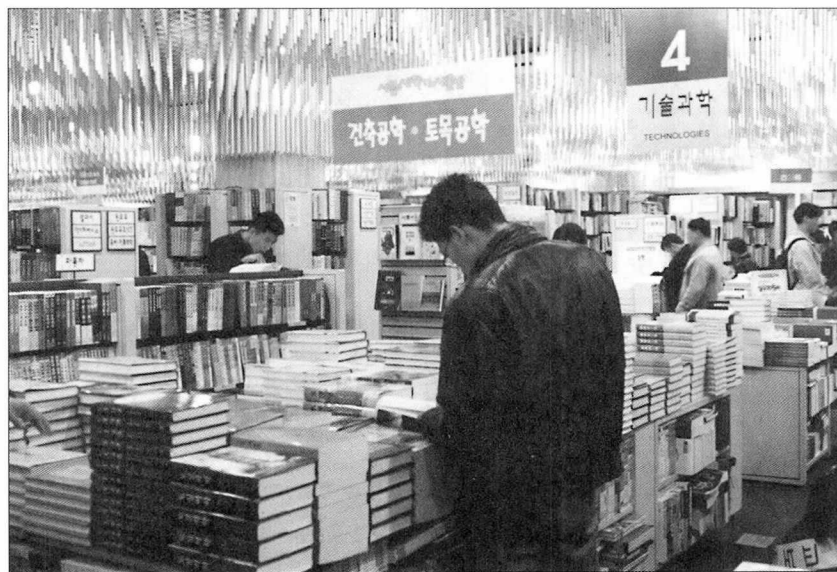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책을 사거나 교과서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책의 내용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이나 어

려운 사정에 경제적인 소모를 해가면서 표지 및 편집디자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 또 전문적인 내용 때문에 편집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한정된다는 사정도 원인이다.

자유아카데미(대표 주정희)의 이진수 편집장은 "과학기술서를 편집하는 사람들 가운데 전공자는 거의 없다. 원고의 내용을 검토하는 일은 교수나 전문가에게 따로 의뢰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결과 제작기간이 길어지고, 편집자는 레이아웃이나 띄어쓰기, 오자를 잡아내는 소극적인 역할에 만족한다. 이 때문에 과학출판에 오래 종사한 편집자들조차 자부심을 갖기가 쉽지 않다.

과학기술에 있어 편집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내용을 더욱 쉽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코드 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기 위한 용어정리나 그림·사진·도표 등 과학기술 메시지를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도 편집자의 몫이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과학기술서는 전문편집자를 키울 만한 여력이 없다.

이렇게 편집자의 역할이 적은 대신 과학기술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저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내용 집필은 물론, 책의 장정이나 서체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



과학기술도서는 지방의 작은 서점까지 연결할 수 있는 유통망이 없어 출판시장 확장에 어려움이 크다.

편집자는 "나이가 있는 저자들은 편집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 새로운 서체나 판형, 레이아웃을 시도할 때마다 저자들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책을 찾는 독자들도 똑같은 내용의 책이면 하드커버에 큰 판형의 책을 고른다고 한다. 교과서나 수험서는 권위적이어야 한다는 오랜 선입견이 과학기술서에 특히 지배적인 것이다.

내용에 있어서 용어나 약어 등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과학기술출판의 문제로 지적된다. 과학기술용어는 아직 학계에서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는데, 일부 제정해

놓은 통일된 용어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진사(대표 이정일)의 한혜정 편집장은 "경이라는 말을 지름으로, 내경이라는 말을 안지름으로 고쳐보냈더니 저자가 다시 원래 대로 바꿔왔다"며 "저자나 독자 모두 일반투의 용어에 익숙해 다른 용어를 쓰면 혼란스러워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저자가 강의자이고 실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장에서 쓰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개별 출판사나 편집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과학기술출

### 열골

## "올해는 과학기술출판 대중화 원년"

(사)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유광중 신임회장



오늘 다지고 있다. 올해를 그동안 사각지대

에 놓여 있던 과학기술출판을 대중화하는 원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막대한 돈을 들인 연구성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구성과를 대중화함으로써 과학마인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출판은 바로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출판협회의 회원사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상황이 척박했던 70년대에 창립됐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과학기술출판의 한길을 걸어왔지만 한번도 전면이 나

서 화려한 조명을 받아본 적이 없다.

"고집과 긍지로 버티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 높은 책을 만들기 위해 정부나 유관단체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책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유회장은 참 바쁘게 뛰어다녔다. 올해 사업계획을 만들어 협회 총회에 제출했고, 과학기술서의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 자클럽 등의 모임에 참여했다. 과학기술부의 실무자를 만나 구상을 이야기하고 과학기술 부 장·차관 등 정책입안자와 구체적인 토론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했다.

"과학기술도서의 도서관 납품을 의무화하는 것, 우수도서상 제정을 위한 기금마련을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도서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초록사업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본래 목회자를 꿈꾸었던 그가 과학기술출판에 뛰어든 것은 우연이었다. 부도 직전의 친구 출판사 운영을 돕다가 한국이공학사를 떠맡았는데,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목회자의 길과 다를 게 없다고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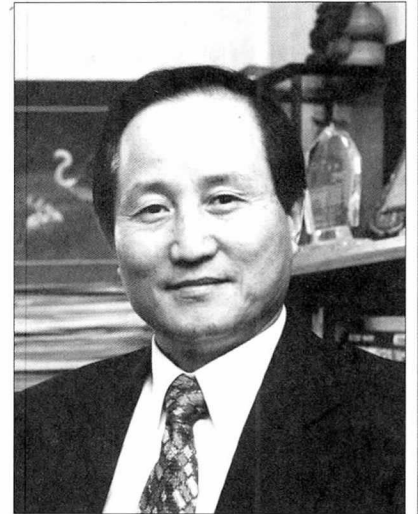
등산에 취미를 가진 유광중 회장은 다음 달부터 지리산에서 시작하는 백두대간 종주를 시작한다. 나이가 적지 않아 체력이 따라 줄지 걱정이지만, 과학기술출판을 이끌어온 강단과 고집으로 한번 해 볼 작정이다.

— 이현주 기자

# 과학기술 대중화와 책의 역할

강해작

기문당 대표



강해작 사장.

과학기술 출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어려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과학기술 출판이 아직 대중적인 독자층을 위한 다양한 도서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출판은 전문서적 위주의 출판행태이기 때문이다. 거의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과학기술 분야는 보기에 따라서 흥미진진한 이야기 주머니이고, 따라서 흥미 있는 책이 나올 법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나마 발행되는 과학기술 도서는 대개가 번역서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의 연구와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지만 유독 과학기술 출판에는 한푼도 예산을 쓴 일이 없다.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그 짐멜은 도구론에서 "인간은 여러 가지 도구를 발명했지만 그중에서 마음의 도구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책뿐이다"라고 했다. 과학은 모든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므로 대중은 과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또한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위해서도 과학 대중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책이라는 도구 즉, 인쇄매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영상매체도 과학 대중화를 촉진하는 데는 효율적이지만 흥미 유발단계에서 필요할 뿐이다. 그동안 미흡하나마 과학기술 출판을 통해 과학기술 인력의 저변을 확대해왔고, 전문기술인의 양성과 과학기술 지식 보급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진흥정책에 기여해왔다. 앞으로도 과학기술 도서는 과학의 대중화에 가장 필요한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일반대중에게 쉽게 풀어 설명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과학적 지식과 아이디어의 저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 저술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지식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저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저술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언급하면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그 진흥을 위해서 과학기술 출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간접지원으로서 정부부처가 우수한 과학기술 도서를 선정 포상하고, 정부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하여 책의 수준에 따라 전국 초중고 및 대학의 도서관에 배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를 위한 출판인들의 헌신과 노력도 더욱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매체의 관심이 중요하며 신간소개를 활성화하여 일반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과학기술 도서의 독서운동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과학기술 출판의 활성화가 곧 과학기술 대중화의 초석이 될 것이며 이로써 저술활동도 활발해질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쉽고 재미있게 풀이된 과학기술 도서가 많이 출판 판매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된다. 이제 초등학교부터 일반대중과 전문기술인에게까지 읽혀지는 다양한 저술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야 하고, 그 전망도 밝다고 생각된다. 과학기술 문화의 보급은 어린이에게는 꿈을, 청소년에게는 희망을, 어른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는 보람을 가져다 줄 것이다.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전문화는 가장 가치 있는 국가시책이 아닐 수 없다. ❖

## 과학기술출판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 전문적인 내용 때문에 편집자의

역할이 한정되고, 교과서와 수험서는

권위적이어야 한다는 선입견도

작용한다. 이론과 실기를 갖춘 저자도

많지 않다. 용어의 통일이나 단일

유통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출판사간의 연대와 정부 및

유관단체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판인들간의 연대를 통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자유아카데미 김진수 편집장은 "과학기술도서 출판의 경우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기밀누설처럼 금기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출판인들간의 연대는 용어의 통일 등 공통과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과학저술인을 개발하는 튼튼한 발판이 될 수 있다.

## 이론과 실기 겸비한 저자 드물어

과학기술 저술인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출판사들의 고민이다. 과학기술출판협회(회장 유광중)의 문형동 사무국장은 "저자가 많지 않아 같은 분야의 책 가운데는 같은 저자의 비슷한 내용의 책이 많다"고 한다. 인천기능대학 허중국 교수는 "우리 산업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외국서적을 그대로 베끼는 양식없는 일부 저자들도 문제"라며 "과학기술서의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의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우수한 저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과학기술서의 더 큰 문제는 학원과 대학 등 교재채택 문제가 미묘하게 얽혀있는 현실이다.

과학기술 출판인들은 이런 문제 외에도 내부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한다. 청문각(대표 김홍석)의 자회사 한승의 김한승 대표는 "과학기술도서는 지방의 작은 서점까지 연결할 수 있는 유통망이 없다"고 말한다. 과학저술의 시장 규모가 워낙 영세해 주로 대형서점에만 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서점에는 책의 존재조차 알리기 어

렵다. 대형서점에서도 변변한 전시공간을 얻기 힘들어 독자가 와서 찾으면 그제서야 창고에서 꺼내준다.

과학기술 전문도매서점인 알파서점의 이상대 대표는 "협소한 시장을 가진 과학기술 도서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공급경로의 일원화, 유통기구의 대형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한다. 과학기술출판협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때 각 지방마다 전문서점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선포 과학기술전문서점을 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과학기술서는 일반적으로 독자에 의해 선택된다는 이유로 서점에 진열되어 비교 '당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됨에 따라 많은 연구소가 세워지고,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만 그 바탕을 이루는 과학기술출판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겹치사 정해상 대표는 "해마다 4월 21일 '과학의 날' 행사에는 과학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시상식이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출판인들이 수상자로 선정되는 일은 아주 드물다"며 안타까워 한다. 과학기술출판협회 문형동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출판협회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법인체로 등록되어 있지만 어떤 혜택도 받고 못하고 있다"며 자구력으로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과학기술 출판이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시장처럼 되어 있어 도서관에 가만히 앉아 세계 어느 나라의 학술도서나 문헌정보도 쉽게 구독할 수 있게 되었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정은 그렇지 못했다. 협소한 시장, 저자난, 국제 교류의 제한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 같이 파내는 과학기술서들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출판의 전면개방시대를 맞아 또다른 위기를 맞고 있는 과학기술출판에 정부나 각계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 이현주 기자